

에너지 과소비 “허리띠 졸라매라”

산자부, 에너지 절감 시급 ... 석유화학산업 상대적 부가가치 낮아

정부가 계속되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.

산자부에 따르면, <국제유가 Monitoring 팀>과 <국제유가 전문가 회의>가 중심이 돼 2100여개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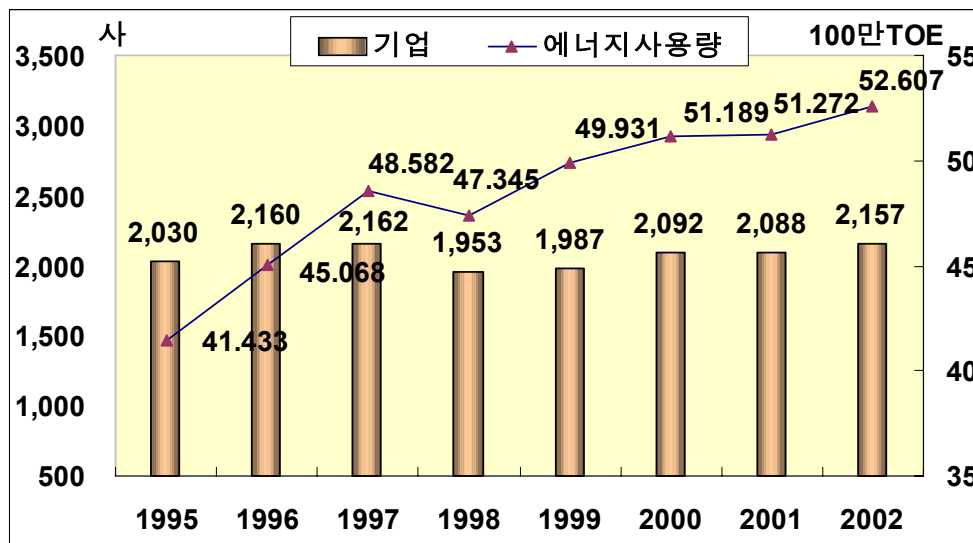
매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은 산업부문 1506개를 비롯해 총 2157개로 조사됐다.

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5262만3TOE로 산업용 에너지 사용량 1억6045만TOE의 32.8%를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3.5%씩 증가하고 있다.

특히,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원단위(Mcal/제품ton)는 일본을 100으로 볼 때 92로 단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소비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나 대부분 범용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.

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혁신공정 및 기술을 개발·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.

국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현황



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2003년 기준 2억1520만TOE를 수요하고 있고 2010년까지 연평균 2.8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또 에너지 소비성향이 고급화돼 무연탄을 비롯한 석탄의 사용비중이 줄고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비가 늘어 2003년 에너지 수입액은 383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1%를 차지했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4/06>